'기상천외' … 세계의 독특한 교통안전 표지판

교통안전 표지판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림만으로 유추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.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운전 중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눈에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.

도로 위의 특이점을 알리거나 안전운전을 돕는 도로교통표지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국제 규격에 따라 만들고 있지만 국가나 지역, 문화적 특색에 따라 이색적인 경우도 있다.

■ 캥거루 출몰 주의! (호주)

호주의 한 보험사가 2년간 접수된 차량 사고를 분석한 결과 캥거루와의 충돌 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. 그만큼 호주에는 많은 수의 캥거루가 살고 있고, 캥거루와의 충돌 사고는 호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.

이를 막기 위해 호주에는 '캥거루 출몰 주의' 표지판이 도로 곳곳에 존재한다. 실제 캥거루는 엄청난 근육질을 자랑하는 동물로, 충돌 시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 '캥거루 출몰 주의' 표지판이 눈에 띄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캥거루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.

■ KISS & RIDE (영국)

상당히 로맨틱한 의미를 가진 표지판도 존재한다. 바로 'Kiss & Ride' 표지판이다. 이 표지판은 가족이나 애인을 짧은 키스로 마중하는 '정차구역' 을 뜻한다. 당연히 주차를 할 수는 없다. 키스를 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KISS & RIDE 구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키스를 할 필요는 없다.

■ 산타클로스 출몰을 주의하세요! (핀란드)

산타의 고향 핀란드에서는 산타가 지나가는 도로에 '산타 출몰 지역' 표지판이 있다.

핀란드 '로바니에미' 라는 산타마을에 존재하는 이 표지판은 일종의 테마형 표지판으로, 실제로 산타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산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며, 재미있는 추억을 안겨주는 표지판이다.

■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표지판 (스코틀랜드)

스코틀랜드에서는 디즈니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표지판이 존재한다. 그래픽 디자이너 '마가렛 캘버트' 가 한 자선단체와 함께 만든 디즈니 캐릭터 표지판은 실제 교통안전 표지판을 재 디자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교통안전 표지판을 더 유의 깊게 보고 교통법규를 지키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

■ 고개를 드세요! (스웨덴)

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'스몸비' 는 전 세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. 스웨덴에서는 스몸비족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처음으로 'Look up, people' 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. 현재 세계적으로 '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' 표지판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다.

■ 취객을 주의하세요! (루마니아)

루마니아 내 헝가리 국경 근처에 위치한 '페치카' 에는 '취객 주의 표지판' 이 있다. 국경 도시인 페치카에서 도로를 질주하던 차들이 매년 술에 취한 사람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, 루마니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'취객이 무단횡단을 시도할 수 있다' 는 의미의 표지판을 설치했다.

■ 축구하고 있어요! (브라질)

축구의 나라 브라질은 남녀노소 축구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으로 유명하다. 이 표지판은 길에서 공을 차며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 운전을 조심히 하라는 뜻이다.

■ 공을 차고 있습니다! (네덜란드)

이 표지판은 네덜란드 남서부의 델프시에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인 보너르프(Woonerf)에 있는 표지판이다. 이 도로에서는 아이들에게 '차 조심해'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.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가 공을 차고 놀거나 사람이 느리게 지나가도 경적을 울리는 등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